HYUNDAI MOTORSTUDIO ART PROJECT

Daniel Arsham

Time in Silence

HYUNDAI

Time in Silence

침묵 속의 시간 Time in Silence

다니엘 아샴 (1980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출생; 현재 뉴욕 거주)

다니엘 아샴은 회화와 조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건축, 행위예술 등 폭넓은 장르를 통합적으로 다루며 예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끊임없이 탐구합니다.

특히 조각에 있어 실물과 유사한 형체의 재연, 자연적 재료, 건축학의 도입 등을 시도하며 시각적 유희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래에는 고대조각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비슷한 재료들을 매체로 활용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상상의 고고학(Fictional Archeology)” 시리즈로 알려진 작업은 일상에서 친숙한 준보석이나 금속과 같이 오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기에 알맞은 지질학적 재료들을 선별하여 사용합니다.

‘현재’라는 순간이 담긴 문화적 오브제를 서서히 부식되어가는 예술품으로 변모시켜 과거와 현재를 융합하고, 그 결과 관객들은 미래의 시간대로 이동하게 됩니다.

Ash and Steel Stage Set (2014)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에서 진행하는 이번 전시 역시 우리에게 친숙한 물건들이 먼 미래로 날아가 버린 듯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재와 강철의 스테이지 세트(Ash and Steel Stage Set, 2014)"는 부식된 키보드, 마이크, 스피커를 그대로 본뜬 모양의 조각물로 음악이라는 주제에 기반한 실물크기 오브제들을 보여줍니다. 누군가에 의해 연주되어야 소리 낼 수 있는 악기들은 무대 위에서 그대로 굳어지고 시간의 흐름에 의해 손상된 것처럼 제작되어, 미래 어느 시대의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나 발견될 법한 모습입니다.

Hourglass (2017)

“상상의 고고학” 시리즈에서 더욱 발전된 신작 “모래시계(Hourglass, 2017)” 시리즈에서는 시간과 물질성에 대한 개념을 더욱 깊이 파고듭니다. 모래시계의 양쪽 끝에는 작가가 고고학 시리즈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던 일상 오브제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게 분쇄된 크리스털이 모래처럼 안쪽을 채워 시계가 뒤집어지면 한쪽의 오브제가 모습을 드러내고 다른 한쪽은 파묻히게 됩니다.

오브제들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하며 굳어버린 시간에서 스스로를 이탈시키고 “재와 강철의 스테이지 세트”와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작가는 이를 ‘순환적인 고고학(cyclical archeology)’으로 칭하며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덧없음을 보여줍니다.

특정 문화 혹은 시대의 정체성을 어떻게 오브제로 표현할지, 그리고 특정 시간의 매개체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작품 구상 시 작가가 항상 염두에 두는 주요 관심사입니다.

무엇이 현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오브제인지, 우리 사회와 역사라는 개념을 가장 잘 압축하여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작품을 통해 모색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작가가 선택한 다양한 주제들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현대의 삶에 대한 탁월한 하나의 기록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ASERATI

다니엘 아샴(Daniel Arsham) 약력

아샴은 뉴욕의 쿠퍼유니언(Cooper Union) 대학에서 수학하였으며, 2003년에는 겔먼 트러스트 (Gelman Trust Fellowship) 장학금을 수여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하이뮤지엄(2017), 조지아주 사바나의 SCAD 미술관(2016),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현대미술센터(2015),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패브릭 워크숍(2012), 뉴욕의 미술과 건축 스토어프론트 갤러리(2011) 등 유수의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단체전과 비엔날레로는 중국 은천 현대미술 비엔날레(2016), 브라질 상파울루의 OCA 미술관(2015), 프랑스 생 에티엔의 현대미술관(2014),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현대미술관(2013), 뉴욕의 뉴뮤지엄(2011), 그리스 아테네 비엔날레(2009), 뉴욕의 MoMA P.S.1 (2005)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샴의 작품은 오스틴의 텍사스주립대학 블랜턴 박물관, 파리의 퐁피두 센터, 파리의 디오르 컬렉션, 마이애미의 포시즌스 컬렉션, 마이애미의 현대미술관, 마이애미의 페레즈 미술관(PAMM), 미니애폴리스의 워커 아트센터 등을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공공 및 민간 컬렉션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아샴은 시각예술 영역 너머로까지 활동하며
2007년 알렉스 머스토넨(Alex Mustonen)과 함께
스나키텍쳐(Snarkitecture)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렇게 건축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여러 패션 브랜드와의 협업,
인테리어 및 건축 디자인, 기능성 디자인에 참여하였습니다.

2014년에 아샴은 “필름오브더퓨처(Film of the Future)”를
설립하였습니다. 필름오브더퓨처는 아샴이 지난 10년간
작업했던 모든 창작물을 아우르며, 동시에 그의 초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예술작품이 존재할 만한 상상의 세계를
영상으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Hyundai Motor Company
Printed with soy ink on 100% recycled paper.